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일자리 강세 유지로 내년 금리 수준 5% 상회 가능성도
- WSJ: 11월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직원들 레버리지
- WSJ 사설: 남성 젊은 근로자는 어디로 갔을까?
- 모건스탠리: 최근 미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는 어떤가?
- S&P 보고서: 11월 일자리: '골디락스'는 아닌 상황이다.

[미국 내 운송]

- WSJ: 미 철도, 파업 피한 후에 노동력 안정화에 주력

[인플레 감축법(IRA)]

- WSJ: 미국의 EV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응에 유럽 내 이견

[오일]

- WSJ: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국제 유가 '흔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이코노미스트들, 중국 코로나 규제 더 빨리 끝날 것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블룸버그 "테슬라, 중국 수요 감소로 생산 20% 감축"
- 한경: 킹달러 꺾이자 뛰는 금값...5개월만에 최고치
- 연합: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ASML, 중국 IT 대응 관련한 미국과 화란의 갈등 화약고
- CNBC: 전기 항공 택시, 향후 10년 항공 산업 뒤흔든다
- CNN Business: 델타, 비행기 조종사들 임금 34% 인상 제안
- CNBC: 태양광 패널로 주차장 덮는다...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Could Pencil In Higher Interest Rates Next Year While Slowing Rises in December

일자리 강세 유지로 내년 금리 수준 5% 상회 가능성도

- 다음 달인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0.5%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은 다음 달 13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인상 폭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했다. 그동안에는 4차례에 걸쳐 각각 0.75% 인상한 것.
- 그러나 바로 최근에 일자리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한 인플레로 내년에 금리가 당초 투자자들의 예상치인 0.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내년 2월에도 0.5%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 폭에 대해서는 내부 조정 또는 내부 의견 차이가 보일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Employers Try to Hold Line on Wages, With Mixed Success
11월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직원들 레버리지

- 고용주와 종업원 간 임금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결과는 향후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중요하다.
- 지난여름 이래 평균 임금이 둔화되기 시작됐으나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발표 결과 시간당 임금 상승은 11월에 연간 5.1%로 10월 연간 상승률 4.9%보다 높았다.
- 노동자들은 구인이 쉽지 않아 임금 상승 '혜택'을 누리고 있다. 11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3.7%. 11월 노동력은 위축되어 팬데믹 전보다도 인력이 줄었다.
- 브로커딜러사인 Amherst Pierpont는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levated Wage Growth

Change in average hourly earnings over the past 12 months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WSJ 기사

WSJ 사설: Where Did Young Male Workers Go?

남성 젊은 근로자는 어디로 갔을까?

- 미 노동 참가율은 52.1%로 팬데믹 전 63.4%보다 줄었다. 베이비부머의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 25세부터 54세까지 남자 연령층의 노동 참가율은 팬데믹 전 88.4%에서 88.4%로 줄었다.
- 특히 지난 팬데믹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노동 참가율이 45세~54세는 0.5% 준 반면에 20세~24세는 1.7%나 줄었다.
- 팬데믹에 따른 현금 부양에 따른 초과 저축 아동 세금 용자, 대학 졸업생의 학비 용자 탕감(일 인당 \$12,800) 등이 여파를 주었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일럿의 높은 인상 요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 둔화 현상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WSJ 기사

모건스탠리 미 주간 투자 전력: AlphaWise US Consumer Pulse Survey

Wave 38

최근 미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는 어떤가?

- 소비자들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월요일에 소매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실망했다. 응답자 43%가 작년 소매업체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13%만 가격이 “좋았다”고 답했다.
- 추가로 26%가 작년보다 할인가가 좋았다고 답한 반면 17%만 할인과 프로모션이 더 좋았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가장 높은 수치인 64%가 인플레이를 가장 우려했고, 소비자의 37%가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두 번째 우려로 꼽았다. 세 번째 우려는 임대료/모기지율(25%)이라고 말했다.
- 미 가구의 저축 잔고는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26%가 저축이 전혀 없으며 34%가 향후 3개월 치나 그 미만, 26%는 4개월~12개월 수준을 갖고 있으며 15%는 1년보다 더 많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대부분인 65%는 인플레이 우려 때문에 향후 6개월간 소비를 줄일 것 같다고 답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 원문

S&P 보고서 : BLS November 2022 Jobs Report- Not A Goldilocks Moment 11월 일자리: ‘골디락스’는 아닌 상황이다.

- 내년 미국 경제, 골디락스는 아니다. 골디락스는 좋은 경제 성장에 물가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 지난주 기대치 20만개보다는 일자리 증가가 26만3천개였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향 조정하면 24만개로 지난 10년 평균 25만개보다 약간 적다.
- 노동 참가율도 62.1%로 줄었다.
- 임금은 올랐지만 인플레이 상상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이다. 즉, 미 가구의 구매력은 줄어들었다. 이 같은 공식적인 임금 상승 압박으로 연준은 내년에 75bp 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 임시직도 3개월 연속 줄었다. 11월에 주 근무 시간은 5개월 전 34.5시간에서 34.4시간으로 줄었다.

S&P 보고서

[미국 내 운송]

WSJ: Railroads Focus on Stabilizing Workforce After Strike Is Averted **미 철도, 파업 피한 후에 노동력 안정화에 주력**

-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철도 노조 파업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수요를 맞추기 위한 충분한 관련 근로자 인력 확보가 문제.
- 철도회사들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팬데믹 시기에 큰돈을 벌었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 Union Pacific Corp와 BNSF Railway는 운송 화물량을 제한하는 엠바고를 발표했다. 엠바고는 재난이 있거나 운송 혼잡 시 운송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철도 화물 엠바고는 2021, 2021년의 641건과 945건에서 올해 1,486건으로 급증했다.
- 단체 노조 임금 협상은 2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교착상태에 빠져 이번에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이 교착상태를 빼고 개입했다. 철도 노조는 그동안 철도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근무가 잦아지고 쉬는 시간도 줄어들다며 교섭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WSJ 기사

[인플레이 감축법(IRA)]

WSJ: U.S. and Europe Gird for Trade Spat Over Washington's Push for Domestic Investment

미국의 EV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응에 유럽 내 이견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보조금을 지불기로 한 법에 대해 유럽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법으로 통과된 내용 수정을 위해 의회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로 인한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중국에 공동 대응이라는 입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유럽은 미 보조금 조치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 프랑스는 미국에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유럽 자체 내에 미국에 대응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 반면에 독일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수출 주도 경제가 이번 무역 마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가 선회하는 유럽 보조금 대응 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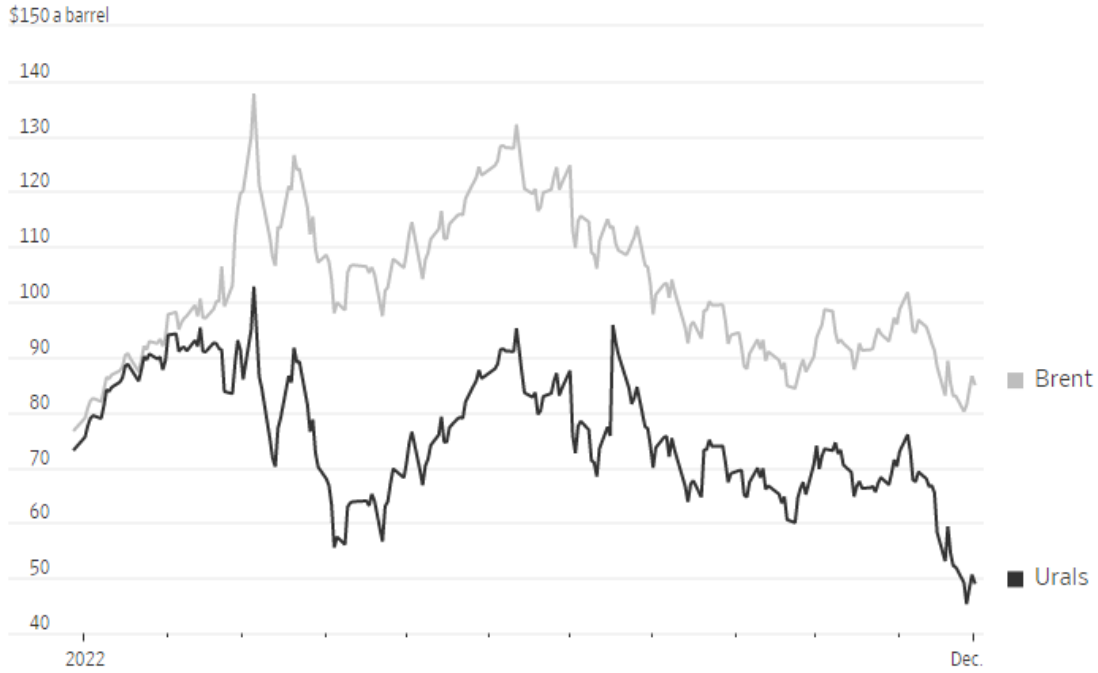
WSJ 기사

[오일]

WSJ: Oil Price Rises After Russia Cap Kicks In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국제 유가 '흔들'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고, 이번 주 월요일 EU와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가 화석연료 공급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서방의 제재가 이어짐에 따라 월요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7.95달러로 2.7% 상승하다 0.4% 하락 중이다.
- 또 분석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규제 완화가 원유 수요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 한편 미국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인한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우려해 배럴 당 60달러를 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 이외의 국가로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허점을 남겼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재에 대한 초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가 고갈되었다. 중국의 은행들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 자금을 대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해운사와 보험사들도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모스크바 원유 가격이 배럴 당 약 53.50달러로 크게 떨어졌고 국제 유가는 요동쳤다.

Price of crude oil from Russia and the North Sea this year



Note: Urals price is for crude leaving Primorsk, and doesn't include insurance or freight costs.
Source: Argus Media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Economists See Faster Reopening in China as Covid Curbs Ease

이코노미스트들, 중국 코로나 규제 더 빨리 끝날 것

- 최근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일부 이동 제한을 철회하는 등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3년 2분기 중국의 코로나 제로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주 월요일 중국 주식이 반등하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재개방을 서구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료자원 부족과 낮은 노인 예방 접종률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2년 전체와 4분기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낮추었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블룸버그 "테슬라, 중국 수요 감소로 생산 20% 감축"
- **한경:** 킹달러 꺾이자 뛰는 금값...5개월만에 최고치
- **연합:**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A globally critical chip firm is driving a wedge between the U.S. and Netherlands over China tech policy
ASML, 중국 IT 대응 관련한 미국과 화란의 갈등 화약고

-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때문이다.
- 이 회사는 중국이 접근하고 싶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한다.
-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 회사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장비를 제공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광범위한 군사용,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각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CNBC 기사

CNBC: How electric air taxis could shake up the airline industry in the next decade
전기 항공 택시, 향후 10년 항공 산업 뒤흔든다

- 미국 전역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전기 항공 택시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델타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s)를 개발하는 Joby Aviation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 역시 각각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eVTOLs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 따라서 항공 택시 사업이 2030년대 항공 산업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eVTOLs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며 개인용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다.
- 항공사들은 eVTOLs을 지속 가능한 항공을 위한 방안이자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항공기 생산과 인증, 인프라 확보에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CNBC 기사

CNN Business: Delta, pilots reach labor deal with 34% pay hike
델타, 비행기 조종사들 임금 34% 인상 제안

- 델타항공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향후 3년간 34%의 누적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계약 초안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계약이 체결된 날 최소 18%의 임금 인상과 2020~2022년까지 누적 수익의 22%에 달하는 일회성 지급, 1년 후 5%, 2년 후 4%, 3년 후 4%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 이는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경쟁이 심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델타의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경쟁사인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역시 벤치마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항공사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여행 수요에 더 높은 요금으로 대응해왔다. 여전히 항공권 수요가 높아 고객들은 계속 비싼 항공권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경기 침체가 수요에 타격을 준다면, 항공사들은 증가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Parking lots are becoming as important as cars in climate change efforts

태양광 패널로 주차장 덮는다...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 향후 수년간 에너지 전환을 겪는 분야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다. EV가 충전되는 주차장이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된 건설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는 지난달 앞으로 5년 안에 80개 이상의 칸이 있는 모든 주차장을 태양 전지판으로 덮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타겟, 홈디포,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태양광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 한편 태양광 카포트와 옥상 태양광(Solar carports and rooftop solar)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각광받고 있다. 전력 가격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 전기차 생산 및 소비 확대, 태양광 설치 비용 감소로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미 전역 대부분의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각국 중앙은행들, 내년 경기후퇴 언급..."물가 낮추려면 불가피"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앞다퉈 나섰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후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내년에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후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